

“항저우 ‘노골드’ 치욕 씻는다”

한국 복싱, 2026 아시안게임서 명예 회복 도전
역대 금메달 59개… 1986때는 12개 전종목 석권
파리올림픽 동메달 임애지 앞세워 금메달 노려

복싱은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최고 효자 종목이었다.

역대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은 59개이며, 안방에서 열린 1986 서울 대회에서는 12개 전 종목을 석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숫자들은 흘러간 과거다.

한국 복싱은 직전 대회인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92kg급 정재민이 동메달 1개를 목에 거는 데 그쳤다.

‘복싱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한국 복싱은 이번 대회도 도전자 입장으로 치른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복싱 금메달은 총 11개가 걸려 13개였던 지난 대회보다 2개가 줄었다.

남자는 55kg(신재웅·국군체육부대), 60kg(장동환·한국체대), 70kg(김준수·보령시청), 80kg(김민성·한국체대), 90kg(김기재·수원시청), 90kg 이상급(주태웅·화순군청)까지 6개 체급이 열리고, 여자는 51kg(박초롱·화순군청), 54kg(임애지·화순군청), 60kg(오연지·울산광역시체육회), 65kg(선수진·



지난 20일 열린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애지. 연합뉴스

성남시청), 75kg급(성수연·원주시청)까지 5개 체급이다.

우리나라는 11개 체급 모두에 대표 선수를 파견한다.

복싱 경기가 열리는 니시오 체육관은 나고야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아이치현 니시오시에 있다.

경기는 9월 21일 예선을 시작으로 체급에 따라 최대 32강부터 시작하며, 모든 체급 결승은 10월 2일 열린다.

한국은 여자와 남자 각각 메달 1개씩 따는 걸 목표로 잡았다.

한국 복싱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

여자 선수가 더 두각을 드러낸다.

그 선두 주자는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54kg급 동메달리스트 임애지다.

한국 여자 복싱 선수의 첫 올림픽 메달이며, 남녀를 통틀어도 2012 런던 대회 한순철(은메달) 이후 12년 만의 메달이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적인 기량을 입증했던 임애지는 이번 대회 54kg급에서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여자 복싱 60kg급 금메달리스트 오연지(울산광역시체육회)도 명예 회복을 베퐬다.

여자 중량급인 75kg인 성수연(원주시청)도 메달 후보로 거론된다.

남자 기대주는 55kg급 신재웅(국군체육부대)과 60kg급 장동환(한국체대), 80kg급 김민성(한국체대)이다.

신재웅과 김민성은 6월 월드컵 2차 대회 동메달, 장동환은 지난 달 아시아 23세 이하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표팀을 이끄는 김호상 감독은 “복싱은 일단 대진표가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다. 초반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선수와 만나는 걸 피한다면, 선수들도 기세를 타고 메달을 노려볼 만하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제주SK FC가 22일 홈에서 열린 김천과 시즌 24라운드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제주SK FC, 또 김천 상무에 막혔다

지난 22일 K리그1 24R 홈경기 0-0… 김천 상대 6경기 연속 무승

제주SK FC가 김천 상무를 넘지 못하고 연승에 실패했다.

전북과 안양을 잇따라 제압한 제주SK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무승부로 제주SK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 K리그1 9경기 연속 무패(4승 5무)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김천전 6경기 연속 무승(4무 2패)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써 제주SK는 승점 1점을 확보하며 9승 8무 7패 승점 35점으로 리그 5위를 유지했다.

제주SK는 이날 제대로된 공격 기회를 잡지 못하며 전·후반 90분 내내 헛심 공방을 벌였다.

제주SK는 초반 공세에 나서면서 전반 14분 아이아스가 왼쪽 페널티 박스 안에서 회심의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백종범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팽팽한 0의 균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반 17분에는 제주SK 등번호 17번 선수인 유인수의 부진상을 추모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반격에 나선 김천의 공세에 맞서 제주SK 김동준의 선방이 빛났다.

김천은 전반 27분 오른쪽 측면에서 교체현이 내준 볼을 박세진이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김동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물거품이 됐다.

전반 29분에는 교체현이 왼쪽 페널티박스 안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에 무력화됐다.

김천은 전반 35분 왼쪽 측면 크로스 에 이은 이건희의 문전 앞 슈팅마저 김동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가로막히며 또 한 번의 득점 찬스가 무산됐다.

후반전에도 김천의 공세가 거셌다. 빠른 역습 전환과 좌우 측면 컷백을 계속 이어가며 제주의 골문을 노렸다.

하지만 제주SK의 수비 집중력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제주SK는 교체 투입된 김진진이 연이은 슈팅으로 득점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제주SK는 경기 막판 이탈리아의 문전 앞 시저스 슈팅이 무산됐고 결국 이날 경기는 0-0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제주SK는 25일 포항을 홈으로 불러들여 2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1999년 이승엽이 달성했던 KBO 최연소 40홈런에 2개차로 따라붙은 김도영. 연합뉴스

KIA 김도영, KBO리그 최연소 40홈런 ‘-2’

어제 키움전 시즌 38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22)이 KBO리그 최연소 40홈런을 향해 대포 두 발만을 남겼다.

김도영은 2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방문 경기에서 시즌 38호 홈런을 쳤다.

그는 1-0으로 앞선 3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키움 선발 전준표의 3구째 속구를 공략, 중앙 펜스를 넘겼다. 비거리 135m의 대형 홈런이었다.

김도영의 홈런은 19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 이후 4경기 만이다.

이 홈런으로 그는 2024년 기록했던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리그 홈런 2위 오스틴 딘(LG 트윈스·32개)과 격차를 6개로 벌렸다.

또한 김도영은 이승엽이 1999년 달성했던 KBO리그 최연소 40홈런(22세 11개월 5일) 기록 경신에 더 다가갔다.

2003년 10월 2일생인 김도영은 다음 달 6일까지 홈런 2개를 추가하면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연합뉴스

LAFC 손흥민, 6경기째 골 침묵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LAFC)에서 뛰는 손흥민이 최근 공식전에서 6경기째 침묵했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틀랜드 팀버스와와의 2026 MLS 22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폴타임을 소화했으나 공격포인트 없이 물러났다.

전반 4분 만에 일격을 당한 LAFC는 후반 34분 드니 부앙가의 동점 골로 1-1로 비겼다.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승(2무 2패)에 그친 LAFC는 승점 35(10승 5무 7패)로 서부 콘퍼런스 3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6·25인천상륙작전 출정 76주년 ·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77주년 · 해병대 9여단 창설 11주년 기념



제26회 제주 해병대의 날

| 일시 2026년 8월 29일(토) ~ 30일(일) | 장소 해병 혼 타(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 ·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대한민국해병대 · (사)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주관 | (사)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6·25전쟁 참전 76주년을 맞이하여 호국영웅 해병대 3·4기 선배님들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그리고 도솔산지구 전투 승리를 기념하며 무적해병의 신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6·25 인천상륙작전 출정 76주년 기념 제26회 제주해병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8월 29일(토)

• 전사체험 해병대 홍보 부스 운영 / 해병대 사진 전시 및 군사 장비 전시·체험

8월 29일(토) 11:00 ~ 19:00 / 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

간병 사식 · 해병 헬리콥터 · 군번줄 제작 · 군복 착용 체험 · 포토존 운영

• 전사체험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진·유품 전시

유품 100여 점, 사진 54장, 영상 시청용 TV

• 식전 행사 광개토 제주예술단 공연 사물놀이 & 비비오 & 국악퓨전

(15:50 ~ 16:30, 탐라문화광장 / 18:30 ~ 19:00, 한라체육관)

해병대 의정대 시범공연 (16:30 ~ 17:00)

호국음악회 (19:00~21:00)

| 장소 |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 해병대 군악대장 송태원 | 진행 권현빈, 김은미

• 초대가수 클로비 합창 그룹 하임프린세스

트롯가수 허나래, 현악가방 강유진

가수 레이나

• 해병대 군악대 연주 공연

군가메들리(성악병) · 군악연주공연

8월 30일(일)

• 해병 혼 타 참배 (10:00 ~ 10:20) 진행 제9여단 인사참모 소령 주재복

| 장소 | 해병 혼 타(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

식전 행사

• 해병대 기록물 방영 (10:00 ~ 10:40)

• 노크 콰이어(KNOCK Choir) (10:40 ~ 10:50)

8호 감방의 노래, 그날을 기억하며, 영웅ost

• 호국영웅 입장식

(국가보훈부 / 8월의 6·25전쟁 영웅 대한민국 해병대 3,4기 선정)

제26회 제주 해병대의 날

기념식 (11:00 ~ 12:00)

진행 중령 양화중 · 김은미

| 장소 | 제주종합경기장한라체육관

식후 행사 •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주최

참전용사 감사 오찬 (12:30 ~ 14:00)

| 장소 | 제주 하늬크라운호텔 별관1층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강대성

제주시지회회장 고현배

서귀포시지회회장 부영인

(사)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무처장 고대경(010-3691-1732)